

# 광주시서구새마을회-소하온, ‘빵빵한 사랑’ 나눔 맞손

지역 취약계층에 빵·간식 전달... 지속가능한 나눔 체계 구축  
40개 산하단체 봉사망 활용해 아동복지시설·저소득 가구 지원

광주시서구새마을회와 소하온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서구새마을회(회장 배창숙)와 소하온(대표 진승희)은 11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빵빵한 사랑 배달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부터 이어온 기부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속가능한 나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껏 만든 빵과 간식을 꾸준히 기부해 온 소하온과 지역 곳곳에 촘촘한 봉사망을 갖춘 광주시서구새마을회가 협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한다는 취지다. “‘빵빵한 사랑 배달부’는 소하온이 갓 구운 빵과 간식을 기부하면 광주시서구새마을회 산하 40개 단위 조직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수령한 뒤 관내 아동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 등에 전달하는 나

눔 프로젝트다. 특히 기부 물품을 지역 봉사자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승희 소하온 대표와 배창숙 광주시서구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유광진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손형주 서구협의회장, 황경희 서구부녀회장, 박병재 직장공직서구협의회장, 김옥자 서구문고회장, 김성찬 서구새마을교동봉사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창숙 광주시서구새마을회 회장은 “‘빵빵한 사랑 배달부’라는 이름처럼 맛있는 빵과 함께 따뜻한 사랑이 서구 곳곳에 넉넉하게 퍼져나가길 기대한다”며 “40개 산하단체 회원들과 힘을 모아 이웃 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서구새마을회(회장 배창숙·왼쪽 네번째)와 소하온(대표 진승희·왼쪽 다섯번째)은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 동천동 소하온에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한 ‘빵빵한 사랑 배달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광주 증심사, 3년 연속 돌봄이웃 사랑 실천

동구에 2000만원 후원금 전달  
관내 취약계층 복지사업 추진

무등산 증심사가 최근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3년 연속 후원금 2000만원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에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임택 동구청장과 증심사 주지 증현스님을 비롯해 조영훈 중무실장, 이장희 홍보팀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증심사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후원금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3년간 누적 후원금은 총 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며 민관이 함께 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기탁된 후원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한 4개 사업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은 은둔형 주민에게 식재료 키트를 제공하고 요리·소통 활동을 돕는 ‘홈룩(Home-Cook) 소통강화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도



무등산 증심사가 최근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후원금 2000만원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에 기탁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청

배·장판 교체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는 ‘지역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자립준비청년 35명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지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영양교육·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튼튼 성장속속 교실’ 등이다. 증심사 주지 증현스님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

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2024년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증심사에 감사하다”며 “소중한 후원금이 은둔형 주민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 세계 학술회의 미생물 치료 분야 차기 의장 선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민정준 핵의학과 교수(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회의인 Gordon Research Conference(GRC)의 ‘Microbes as Therapeutics’ 분야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GRC는 세계 각국의 선도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성과와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일반적인 대규모 학술대회와 달리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연구자 간 심도 있는 교류와 새로운 연구 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차기 의장 선출은 새롭게 출범한 국제 연구 분야의 학술적 방향과 연구자 공동체를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RC 의장은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를 초청하는 등 국제 연구 의제와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미국 메인주 베이트대학(Bates College)에서 열렸으며, 유전공학적으로 설계한 미생물을 활용해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주



요 의제로 다뤘다. 민 교수는 첫 ‘Microbes as Therapeutics’ GRC의 개막 첫 세션인 ‘Bacterial Cancer Therapies’에서 첫 번째 기조 강연 연사로 나서 ‘From Tumor-Targeting Bacteria to Programmable Living Medicine’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수행해 온 중앙 표적 박테리아 연구와 박테리아를 치료물질을 생산·전달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살아있는 의약품(Living Medicine)’으로 발전시킨 연구성과를 소개했다. 민정준 교수는 “20여년 전 박테리아를 암 치료에 이용하는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매우 작은 연구 분야였지만, 이제는 세계의 뛰어난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독립적인 Gordon Research Conference가 만들어졌다”며 “초창기 의정을 맡게 된 만큼 개인의 연구를 넘어 다음 세대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과학적 질문이 인류의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적인 학문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전남광주통합특례시의회는 11일 전남청사에서 구정지 주광주 중국 총영사를 접견하고, 의회 출범을 계기로 전남광주와 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광주특별시의회, 주광주 중국총영사와 교류협력 모색 비엔날레·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 약속

전남광주통합특례시의회는 11일 전남청사에서 구정지 주광주 중국 총영사를 접견하고, 의회 출범을 계기로 전남광주와 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송형곤 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부의장,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 강문성 원내대표, 김진남 대변인이 참석해 양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와 상호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다음달 5일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와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구정지 총영사는 광주비엔날레 중국관 운영 계획을 소개하며 송형곤 의장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 경축 리셉션에도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에 송형곤 의장은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는 한편, 구정지 총영사에게 여수세계섬박람회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구정지 총영사는 “전남과 광주는 그동안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온 지역”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교류관계가 더욱 확대돼 전남광주와 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광주와 중국은 역사 속에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 연대하며 함께해 온 깊은 인연이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류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례시의회는 통합 이전부터 중국 지방의회와 맺어온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장시성 인민대표회의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산시성·저장성·장쑤성·푸젠성·광저우시 등 중국 여러 지역과도 우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다음달 6~7일에는 광저우시 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이 광주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우호 증진과 상호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남대 학생들, AI로 전남의 ‘섬·해양문화’ 구현

건축디자인·문화관광경영학과 현장 프로그램 참여

전남대학교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전남 지역의 섬과 해양문화 자원을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했다.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는 지난 5~6일 건축디자인학과와 문화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AI×Projection Mapping Creative Workshop (ISLAND SYNTHESIS 2026)’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전남의 섬과 해양문화 자원을 생성형 AI와 디지털 공간 기술로 재구성하고, 프로젝트 매핑을 통해 실제 공간에 구현하는 융합형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전남의 섬과 바다가 지닌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야기를 주제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했다. 제작한 콘텐츠는 건축 모형과 실제 공간에 투사해 몰입형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했다. 첫날에는 디지털 트윈과 게임 엔진의 기본 개념을 비롯해 프로젝션 매핑의 원리와 국내의 활용 사례를 살펴봤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영상 제작과 매핑 프로그램인 ‘MadMapper’ 실습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가 실제 공간에 구현되는 과정을 익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면 속에 머물던 AI 콘텐츠를 건축 모형과 실제 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의



미가 있다. 건축디자인과 AI 콘텐츠, 공간 연출 기술을 결합해 지역 문화자원을 새로운 전시·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모색했다. 전남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건축디자인 교육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공간 연출 분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남 지역 문화자원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K-컬처 콘텐츠 제작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재훈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이번 워크숍은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남의 섬과 바다가 지닌 이야기를 새로운 공간 경험으로 확장한 시도”라며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전시와 관광, 지역 홍보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전남대학교(여수) 전남 앵커 사업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